요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위험한 생각들

교육의창

추교준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장

내 아이와 같은 해에 태어난 하늘이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어떤 악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늘이의 일이 떠오른다. "선생님은 하늘이를 도와주는 슈퍼맨"이라는 아빠의 말을 믿고 그 인간을 뒤따라갔을 하늘이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너진다. 가슴 한가운데에 평생 메울 수 없는 구멍을 부여안고 살아가야 할 하늘이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저릿저릿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큰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정부 당국은 허겁지겁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관한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위험한' 교사들을 때마다 솎아내어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학교는 옛날부터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1995년 고(故) 김대현군이 학교폭력으로 삶을 마감한 이후, 그의 아버지가 남은 인생을 바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현 푸른나무재단)을 세운 뒤에야,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이 우리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4년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몇몇 큰 사건들을 더 겪고 난 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 욕설, 폭행,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위험들을 행정 절차에 따라 다루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위험들이 더 크고 많은 위험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고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결론을 차분하게 기다리지 않는다. 학폭 신고 자체를 피해야 할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은 2019년부터 본격화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준 담임 교사도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하여 아동 학대로 신고한다.

이처럼 위험한 학부모들이 '민원'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곳저곳만의 일도 아니다. 학교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하면, 어느 몰상식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던 교사가 2023년 7월 서이초의 어느 교실 구석에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결단을 할 정도이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광장으로 달려 나왔고 당시에도 정부 당국은 교권 보호 대책을 쏟아내며 '위험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로부터 분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위험한' 교사와 폭력을 일삼는 '위험한' 학생, 악성 민원을 쏟아내는 '위험한' 학부모들을 일일이 솎아내면,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학교는 위험한 곳일 수밖에 없는데, 이곳은 12년 동안 각기 다른 재능과 고유성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을 대학 입시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획일적인 트랙 위의 무한 경쟁으로 떠미는 곳이기 때문이다.

옆에 앉은 친한 친구도 결국 잠재적 경쟁자이며,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나눔이, 우정이, 연대가, 협력이, 사랑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갇힌 채 12년 동안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폭력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의 자료를 보면, 이 땅의 청소년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들은 214명이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이 글을 끄적이며,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에 이르니 불안하고 위축되기만 한다. 아둔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어디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겠다. 당장에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한참을 어물어물 하다가 문득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지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아비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내어 달라고 울부짖는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마땅히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혜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 해에 학생들이 200명씩 목숨을 끊고, 교사들이 900명씩 탈출하는 이 위험한 곳을 어떻게든 인간적인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지옥도를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사진으로 보는 세상

21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AP에 따르면 바티칸은 교황이 장기간 지속된 천식성 호흡기 위기로 인해 산소 공급이 필요한 중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서석대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Data Center)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다. 쉽게 말해 거대한 '디지털 창고'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서비스, 금융거래, 기업 운영, 인공지능(AI)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서버 저장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디지털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설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각국 정부까지 데이터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며칠 전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해남군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대인 3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데이터센터 투자그룹인 '스톡 팜 로드(SFR)'와 최대 350억 달러(약 50조원) 투자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투자사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재생에너지 생산, 장비 공급 등 분야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릴 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수천 대의 서버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냉각 시스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보안 시스템 등의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요구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단위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적이다.

전남에는 이미 태양광,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될 경우 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전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박성원 편집국장

社說

화재진압시 파손기물 배상 문제 개선돼야

면책 등 기준 꼼꼼히 손질해야

광주 북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여러 세대의 현관문을 부수고 인명 구조 목적의 수색을 벌였다.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을 구조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현관문을 파손한 것은 소방관의 적법 행위다. 이럴 경우 최초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가입 화재보험에서 파손된 현관문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 주인이 화재로 사망했다. 사실상 구상권 청구가 어렵게 된 것이다. 최초 화재 발생 외 다른 세대주들은 파손된 현관문 수리를 직접 처리해야 할 형편이다. 수리 책임을 떠안게 된 이들은 소방당국에 보상 방법이 있는지 문의까지 한 상태다. 소방당국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해 불가피한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구조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화재 책임자 사망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렵게 된 상황과 맞물려 해당 빌라는 화재보험 가입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 해당 빌라는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빌라 입주민 역시 화재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 역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소방기본법도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큰 틀의 책임과 달리 보험이나 소방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등 최소한의 안전망 설계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건물주의 사망이라는 변수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잘못된 보험설계의 전형이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한다. 또한 화재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번 빌라 세대주들의 소중한 재산도 지켜줄 수 있도록 보험체계 보완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미 마련된 면책과 배상의 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정비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소중한 재산도 보호해야 한다.

'명맥 위기' 무등산 수박 이제와 지킨다고

제대로 된 육성방안 내놔야

임금님 진상품으로 불리는 '무등산 수박'이 재배농가 감소로 명맥이 끊길 위기다. 무등산수박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2000년 30농가(12.0ha)에서 2017년 11농가(3.1ha)로 줄었고, 지금은 7농가(2.6ha)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량도 2000년대 초까지는 연간 3000~4000통을 유지하다가 2022년 이후 연간 2000통 내외로 줄었다.

무등산 수박 농가 개개인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다. 무등산 수박은 종자가 개량되지 않아 개별 농가가 자가 채종한 씨를 심는다. 수확한 씨를 건조해 보관한 뒤 이듬해 물에 담가 발아시키는 방식이다. 2019년 광주시·전남대학교 등이 병해충·기후변화에 강한 종자 개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수나 비료 살포도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개인의 판단에 의존한다. 농가마다 수확량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은 줄무늬가 없어 '푸랭이'로 불리는 무등산 수박은 해발 300m 이상 무등산 기슭에서만 자란다. 약 350년 전 몽골에서 가져온 종자를 무등산에 심었다고 알려진다. 향과 감칠맛이 뛰어나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다. 특유의 향과 단맛 때문에 오랜 기간 인기를 끌었다. 특히 큰 것은 무게가 20kg에 달하는 등 일반 수박보다 2~3배 큰 크기로 유명하다. 특품으로 분류되는 14kg 이상 수박은 개당 15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데, 주로 선물용으로 소비된다. 생산량이 적고 값이 비싸 귀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지역 명물이지만 제대로 된 육성방안이 없었다니 안타깝다.

무등산 수박은 광주의 대표 특산품이다. 농도가 아닌 산업화 중심의 도시에서 누가 알아줬겠는가. 그나마 광주시는 23일 '무등산 수박 육성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런 노력을 좀더 서둘렀다면 하는 아쉬움이다. 무등산 수박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량 종자 개발이 급선무다. 하지만 우량 종자 개발은 많은 시간 투자가 뒤따른다. 7개 농가만이 명맥을 이어가는 무등산 수박이 그때까지 존립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 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